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 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0점 또는 감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문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사회계 문제지는 총 1장 2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프랑스에서 이슬람 여성들의 베일 착용 금지가 초입기에 들어간 가운데, 부인에게 베일 착용을 강요한 무슬림 남성의 시민권 신청이 거부됐다. 최근 프랑스 법무부가 부인에게 베일을 강요하는 남편들에게도 시민권 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 이후 나온 첫 거부 사례로 부르카, 니캅(눈을 제외한 얼굴과 전신을 가린 검은 베일)착용 금지 파장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에릭 베송 프랑스 이민 담당 장관은 2일 성명을 통해 “프랑스 국적 여성과 결혼한 모로코 출신 남성이 시민권 심사에서 부인에게 니캅을 쓰지 않을 경우 외부 출입의 자유를 제한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는 남녀평등과 세속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프랑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양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신문 르 피가로가 법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모로코 남성은 여성과 악수를 거부하거나, 집 안에서 아들 딸들을 한 공간에 함께 있지 못하게 하는 등 평소 여성 차별적 태도를 취해 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생활 방식은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관점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으나, 프랑스가 추구하는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는 공존할 수 없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08년 모로코 출신 여성의 시민권 신청을 베일 착용과 급진적 이슬람 성향을 이유로 들어 거부한 적이 있다. 이번 시민권 발급 거부 사건은 부르카 착용 금지 논란과 관련해 프랑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프랑스 의회 부르카 조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전신을 가리는 베일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프랑스 집권 여당 대중운동연합(UMP)은 조만간 프랑스 의회에 금지 법안을 제출해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나]

각 외국인마을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회적 거리감은 마을마다 차이가 있다. <표 1>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07년에 발표한 보고서 중 외국인마을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한국 사람들에게 5점 척도(1: 매우 작음, 5: 매우 큼)로 설문하여 응답받은 결과의 일부이다. 이로 보건대 외국인마을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정서적 포용이 더 필요하다.

다행히도 국적과 인종, 그리고 종교 등에 의해 조성된 다양한 외국인마을이 한국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그곳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마을 속 외국인들을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원곡동 다문화특구에 들어서면 이국적인 풍경에 놀란다. 거리에는 중국어 간판, 태국어 간판, 몽골어 간판, 베트남 간판 등이 즐비해 국적을 알 수 없는 이방의 도시에 들어선 느낌이다. 다문화특구 거리에는 히잡을 쓴 이슬람계 사람들과 검은 피부의 아프리카 사람들부터 중국, 몽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등 국제적인 도심을 느낄 수 있다. 다문화특구에 등록된 외국인 국적 100여 개국의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상점에는 기름에 튀긴 도넛과 만두호떡, 연변순대 등 중국음식이 넘쳐나고, 태국 쫄면, 네팔식 카레 등 다양한 음식이 펼쳐져 있다. 과일가게에는 망고스틴, 두리안, 바나나 등 열대과일이 넘쳐나고 있어 마치 동남아에 온 느낌이다. 식품점에는 중국산 향신료와 중국전통술 등 각종 식료품이 진열장에 즐비하고, 휴대폰 상점에는 중국점원, 베트남점원, 태국점원 등이 각국의 고객들에게 자국어로 설명하는 풍경도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중국전통음식 식당은 물론 태국, 베트남, 몽골, 태국 등 전문 음식점들은 약 150여 곳에 이른다. 주말이 되면 이곳에 음식을 맛보러 오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발길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들 외국 음식점들은 본국의 맛을 내기 위해서 본국에서 전문 요리사를 초청해 한국에 이주한 동포들에게 고향의 맛을 제공해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1> 외국인마을별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마을	응답(1~5점) 평균
항목1: 우리나라에 같이 사는 것	프랑스마을	2.1
	조선족마을	2.8
	몽골마을	자료 없음
항목2: 내 자녀와 결혼하는 것	이슬람마을	2.3
	프랑스마을	3.0
	조선족마을	3.6
	몽골마을	자료 없음
	이슬람마을	자료 없음

< 뒷면에 계속 >

[다]

자연의 섭리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원칙은 이 지상의 모든 생물의 종(種)이 내면적으로 격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인 관찰만 해 봐도, 생물들의 생식과 증식은 자기 내부로 제한되는 것이 거의 철칙이다. 어느 동물이나 같은 동료하고만 짝을 짓는다.

이러한 철칙은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했을 때에만 변경된다. 예를 들면, 다른 동물에게 붙잡혀 강요된 경우라든가, 또는 같은 종끼리의 결합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도 자연은 모든 수단을 써서 그것에 저항한다. 가장 명백한 자연의 항의는 잡종에 대해 그 후의 생식능력을 거부하거나, 혹은 자손의 임신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 병(病)이나 적의 공격에 대한 저항력을 빼앗고 만다.

전혀 다른 두 생물을 교배하면 그 자손은 양쪽 부모의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태어난다. 즉 그 자손은 양친 중 열등한 쪽보다는 우수할지 모르지만, 우등한 쪽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 그 결과 이보다 우등한 생물과의 투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합은 생명 자체를 보다 우수하게 양육하려는 자연의 의지에 반한다. 따라서 이 의지가 행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고등한 자와 보다 열등한 자의 결합이 아니라 전자의 철저한 승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다 강한 자는 지배해야 하며, 보다 약한 자와 결합함으로써 자기의 뛰어난 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라]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이슬람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1935년, 그때까지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되던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으로 개조하면서 드러난 사실입니다. 벽면의 칠을 벗겨 내자 그 속에서 모자이크와 프레스코로 된 예수상과 가브리엘 천사 등 수많은 성화들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은 채 고스란히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500년 동안 잠자던 비잔틴의 찬란한 문명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벽면에 칠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 일대 사건입니다. 비잔틴 문명의 찬란함이 경탄의 대상이 되었음은 물론이지만, 그보다는 비잔틴 문명에 대한 오스만 튀르크의 관대함이 더욱 놀라웠던 것입니다. 이교도 문화에 대한 관대함이었기에 돌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마호메트 2세는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난 다음 바로 이 소피아 성당으로 말을 몰아 성당 파괴를 금지시켰습니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성소를 파괴하지 말라는 엄명을 내린 다음, 이제부터는 이곳이 사원이 아니라 모스크라고 선언하고 약탈을 금지했습니다.

[마]

The first use in American literature of the concept of immigrants "melting" into the receiving culture are found in the writings of J. Hector St. John de Crevecoeur. In his Letters from an American Farmer(1782) Crevecoeur writes, in response to his own question, "What then is the American, this new man?" that the American is one who "leaving behind him all his ancient prejudices and manners, receives new ones from the new mode of life he has embraced, the government he obeys, and the new rank he holds. He becomes an American by being received in the broad lap of our great Alma Mater". Beginning in the 1890s, large numbers of Southern and Eastern European immigrant groups such as the Italians, Jews, and Poles arrived. Many returned to Europe but those who remained merged into the cultural melting pot, adopting American lifestyles.

[바]

지금까지 교과서적이면서 당연한 말이지만, 한 나라 문화의 발전은 다른 문화에 대한 폐쇄적인 태도 속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문화들을 일방적으로 수입한다거나 다른 문화들을 무조건 적극적으로 수용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들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노력과 함께 그 '다름'을 자신의 문화 속에 융해시키면서 자신의 것을 내용 면에서 좀 더 풍부하고 좀 더 보편적인 차원으로 종합시키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한 창조적 종합의 노력이 바로 한 민족이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학문 및 예술-문화 활동의 요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그와 같은 노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 및 축적되어 나타난 결과가 독자적인 고유문화의 존재일 것이고, 그러한 고유문화의 존재에 대한 자의식 속에서 그것에 대한 깊은 애정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일반인들의 의식 전체에 확산될 때 한 민족의 문화적 자신감이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문화적 정체성이자 민족의식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국가 속에 여러 가지 다른 문화의 공존이 바람직할 경우란, 다시 말해서 '다른 것이 아름답다'라는 명제가 진정으로 성립하는 경우란,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는 주체가 되는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바로 문화적 우월감이나 자신감 차원의 적극적인 문화적 민족의식은 아니라도 적어도 소극적 차원의 문화적 민족의식이 존재할 때인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다른 문화가 바로 자신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문화적 주체의식 또는 정체성이 존재할 경우에만 다른 문화들이 한 국가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톨레랑스의 명제가 성립하는 것이다.

[문제 I]

제시문 [가]~[마]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세 가지로 분류하고, 그 내용을 각각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다]~[마]의 논지를 비판하시오. [601자 이상 ~ 700자 이하 : 배점 40점]

[문제 III]

제시문 [나]의 <표 1>에 나타난 평균 점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감이 크다는 뜻이다. 마을 i 에 대한 항목1과 항목2의 평균 점수를 각각 x_i, y_i 라고 할 때, 임의의 두 마을 A, B에 대한 관념적 거리를 뜻하는 d_{AB} 는 $d_{AB} = \sqrt{(x_A - x_B)^2 + (y_A - y_B)^2}$ 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프랑스마을과 조선족마을 사이의 관념적 거리보다 프랑스마을과 몽골마을의 관념적 거리 및 프랑스마을과 이슬람마을의 관념적 거리가 더 가까울 확률을 각각 구하고 도형과 수식으로 그 근거를 논술하시오. 단, 답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며, π 는 3.14로 계산하고, 응답 평균이 1과 5사이의 특정 값이 될 확률은 균일하다고 가정하자. [501자 이상 ~ 600자 이하 : 배점 30점]

출 제 개 요 (사회계)

‘다문화 현상(문화적 이질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종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 평가 - 교과서, 고전, 시사 등에서 통합적이고 다면적인 논술 능력 평가에 주안점

2015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사회계열 문제는 사회계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비판적이고 분석적인 사유를 기반으로, 특정 주제를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 사고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설명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위해 제시문 분석을 바탕으로 이질적 문화에 대한 견해와 태도의 차이를 이해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했다. 문화적 이질성, 또는 다문화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로서 이를 충실히 학습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제시문들로 구성했다.

<논제 I>에서는 제시문의 중심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비슷한 성격의 글을 분류하고 통일감 있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에 대해서 상이한 태도를 갖는 세 부류를 묶을 수 있어야 한다. 즉, 제시문 [가]와 [마]는 각각 양성 평등의 입장에서 이슬람의 부르카 문화를 허용하지 않는 프랑스 당국의 태도 및 각자의 혈통과 문화를 용광로에 녹혀 새로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미국의 동화주의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제시문 [나]와 [라]는 각각의 고유문화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문화를 관대하게 존중하는 다문화주의적 태도를 보여준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제시문 [다]가 열등한 생물에 대한 우등한 생물의 배타적인 승리가 인류의 우수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극단적인 민족주의적 태도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II>에서는 문화적 주체의식이나 정체성 없는 톨레랑스는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제시문의 논지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출제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논리 전개에 기준이 되는 제시문 [바]의 대의를 충분히 분석하고 이를 각각의 제시문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타문화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시문 [다]는 문화를 열등/우등의 이분법으로 나누고 자신들의 문화만을 절대화한다는 문제를 갖고 있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제시문 [라]는 새로운 문화 정체성 확립 노력 없이 이질적인 두 개의 문화가 별개로 존재한다면 창조적인 문화융합을 이룰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각자의 문화 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제시문 [마]는 그 새로운 문화가 하나의 주류문화로 작동하여 그렇지 못한 문화를 동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만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 III>에서는 사회계 학생들이 사회과학 문헌에서 자주 등장하는 통계 자료를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이로부터 다양한 추론을 전개함에 있어 수리적인 추상화 및 도식화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출제했다. 인문계 고등학교 과정에 포함된 원의 방정식과 확률 및 통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어렵지 않게 풀이과정과 답을 도출할 수 있게 출제했다. 다만 확률 계산에 있어 원의 방정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응용능력을 갖추었는지가 관건일 것이다.

[제시문 출처]

- [가] 문화일보, <부인 부르카 착용 강요 모로코 남성 시민권 거부… 佛 끓는 ‘베일 금지 논란’>, 2010년 2월 3일.
- [나] 다문화일보, <안산다문화특구에 관광객 몰려온다>, 2014년 3월 31일, 김은미·양옥경·이해영, 『다문화사회, 한국』, 나남, 2009.
- [다] 히틀러, 『나의 투쟁』.
- [라] 신영복, <소피아 성당과 불루 모스크 편- 관용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입니다>, 『고등학교 문학 II』, 좋은책신사고.
- [마] Wikipedia, <Melting pot>
- [바] 양승태, <톨레랑스, 차이성과 정체성, 민족 정체성, 그리고 21세기 한국의 민족주의>, 『정치사상연구』 13-1, 2007.

예 시 답 안 (사회계)

<논제 I >

[가]~[매]는 다문화 수용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 [매]는 동화주의적(melting pot) 입장을, [나], [래]는 다원적 다문화주의(salad bowl) 입장을, [대]는 극단적 민족주의 입장을 보인다.

[가]에서 프랑스 정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어긋난다면 부르카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다. [매]에서 미국인들은 혈통과 문화를 용광로에 넣어서 새로운 생활양식, 정부, 그리고 개인의 지위를 만들어 간다고 주장한다. 이는 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단일한 문화를 형성하려고 하는 태도이다.

한편 [나]는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자기 고유의 문화를 지켜가면서 서로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래]도 비잔틴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공존을 통해 이교도 문화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태도이다.

이에 비해 [대]는 우등한 인자가 열등한 것을 지배함으로써 인류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적 태도이다. [496자]

<논제 Ⅱ>

제시문 [바]는 다른 문화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지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수용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확고한 문화적 주체의식이 갖춰 있을 때 비로소 다른 문화를 창조적으로 수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고 보편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시문 [다~마]는 각각 문제를 안고 있다. 제시문 [다]는 타 문화에 대해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른 문화를 자신들보다 열등한 것으로 치부하고 배제하려고 한다면 문화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신들의 문화적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다른 문화를 적극 수용할 때 더욱 우수한 문화를 창조할 수 있다. 제시문 [라]의 경우 새로운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이질적 두 개의 문화가 별개로 존재한다면 창조적 문화융합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각각의 문화가 자신들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이들을 창조적으로 종합하여 문화적 민족의식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제시문 [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정체성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별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유입되는 다문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기존의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651자]

<문제 Ⅲ>

프랑스마을(A)과 조선족마을(B)의 관념적 거리는 $d_{AB} = \sqrt{(x_A - x_B)^2 + (y_A - y_B)^2} = \sqrt{(2.1 - 2.8)^2 + (3.0 - 3.6)^2}$ 으로 $\sqrt{0.85}$ 이다. 이는 <그림1>에 나타난 원의 반지름에 해당한다. 이때 프랑스마을에 대한 몽골마을의 관념거리가 조선족마을보다 더 가까우려면 몽골마을에 대한 사회적 거리를 의미하는 좌표인 (항목1평균, 항목2평균)이 원 안에 속하면 된다. 이때 원 안에 속할 확률은 $\frac{\text{원의면적}}{\text{전체면적}} = \frac{0.85\pi}{(5-1)^2} = \frac{17}{320}\pi \approx 0.17$ 이다.

한편, 이슬람마을의 경우는 항목2의 값이 2.3임을 알고 있으므로 조건부확률이 된다. 따라서 원의 방정식인 $r^2 = (x-a)^2 + (y-b)^2$ 를 활용하여 $0.85 = (2.3 - 2.1)^2 + (y - 3.0)^2$ 을 만족하는 y 를 구한다. 그러면 $(y - 3.0)^2 = 0.81$, 즉 $y = 3.9$ 또는 2.1 이 된다(<그림2> 참고). 결국 이슬람마을의 항목2의 평균이 2.1에서 3.9 사이에 들기 위한 확률은 $(3.9 - 2.1)/(5 - 1) = 0.45$ 이다. 따라서 답은 각각 0.17과 0.45이다.

